



한국틴스타

2009년 3월
제17호

www.teenstar.or.kr

나의 성(性)을 마주하며

조만나스 지음 / 류해욱 옮김

깊은 곳에서
그리고 온 존재를 통하여
저를 뒤흔들어 놓는 이 선물에 대해
당신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욕구와 감정들을 초월한 척 가장할 때조차도
저의 전 존재는 제게 상기시켜 줍니다.
부드럽게 때로는 거칠게
저는 성을 지닌
깊고 아름다운 성을 지닌 존재임을.

아마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하듯이
이 문제들이 유독
저에게만 있는 어떤 것으로 생각하곤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너무도 균형이 잡혀 있고
너무도 고요하고
너무도 성을 초월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제
저를 한 남자와 한 여자로서
다정다감한 정열을 통하여 저를 지으심에 감
사드립니다.

당신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자신에게서 우리를 이끌어 내는
당신의 놀라운 미술에 대해.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성적 열망의 강함과 사랑의 경이는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축복
이라는 것을.

『햇살처럼 비껴오시는 당신』 가운데서

존재가 기적이다.

정순심 · '총체적인 성' 프로그램 참가자



우연히 '총체적인 성' 소모임을 소개받았고, 여러 주제로 함께 나눔을 하게 되었다. 첫 시간에 점액을 관찰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고 생리주기학습표에 날마다 관찰한 점액을 기록하였다. 내 나이는 사십대 중반이고 세 아이의 엄마다. 하지만 내 몸을 제대로 느낀 것은 점액관찰을 시작하고 난 뒤부터인 것 같다. 막연히, 그냥, 대충이란 개념으로 몸에 대해 섬세한 배려 없이 지낸 사십여 년의 세월이 굉장한 아쉬움으로 다가왔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야말로 눈을 뜨고 제대로 나 자신을 만나는 느낌이었다.

호르몬의 분비를 배우면서 호르몬의 종류나 양에 따라 우리 몸이 굉장히 민감하고 예민하게, 또 부지런히 움직인다는 사실을 알았다. 생명의 탄생을 위해 주기적으로 내 몸이 준비되어지는 과정에서 지체들끼리 상호보완하고 깊이 배려하는 유기적인 관계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말씀하신 교회의 모습으로 다가왔다. 어쩌면 외부에서만 찾으려 했던 사랑이나 교회의 모습이 이미 내 몸 안에 존재하고 있음을 느꼈다고 한다면 너무 외람된 표현일까?

밖으로 표현되어지는 나는 별반 달라진 게 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내 몸을 인식하고 인정해 줄 수 있는 이 여백을 만난 뒤에는 어쩌면 그동안 영성을 추구하고 산다고 생각했던 내 삶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삶은 아니었나 돌아보게 하였다. 또 어제의 몸이 아니라 날마다 새로운 내 몸을 느낀다는 것은 그냥 지나치기 쉬운 일상에 생기를 공급받는 산소 같은 신선함이었다.

모임에서의 나눔도 깊이가 있었다. 사실 성이라는 영역은 어떤 의미에서는 쉽게 드러낼 수 없는 조심성이 있다. 하지만 모임에서 나는 많은 이야기들 속에서 남편과의 관계, 또 자녀와의 갈등, 그리고 여러 대인관계와 일처리하는 모든 일상이 내 자신의 생체리듬과 결코 분리시켜 생각할 수는 없다는 것을 알았다. 먼저 내 주기적인 변화 리듬을 내가 인식하여 휘둘리지 않고 주도적인 삶을 살 뿐 아니라 때로는 주위 사람에게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함으로써 함께 공존해 나갈 수 있다면 한결 나은 삶이 영위되리라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그리고 마지막 시간 즈음에 <생명의 신비>



라는 영상물을 보게 되었다. 태아가 자라는 과정은 기적이었다. 수억의 경쟁을 뚫고 그 험난한 난자의 만남을 향해가는 정자는 나아가는 과정에서 성숙된다고 한다. 어쩌면 우리네 인생의 축소판이 이미 정자 속에 씨앗으로 자리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정자가 쓰고 있는 헬멧은 창조주의 섬세하심이 그대로 드러났고(헬멧, 그 헬멧만 생각하면 자다가도 미소가 고인다.) 난자가 착상하는 과정이나 분화되어 혈관이 만들어지는 과정 등은 탄성이 터져 나오는 경이로움 그 자체였다. 털이 부슬부슬한 태아, 그 태아 속에서 이미 만들어진 원시 정자와 난자 등에 대한 이야기는 도대체 처음 듣고 보는 빅 뉴스였다.

저런 경이로운 일이 내 속에서 일어났다니! 아니, 지금도 그 일을 위해 이다지도 주기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니! 내 안에서 솟아나는 감사를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가 없었다. 내 존재 자체, 또 내 태를 빌어 태어나준 세 아이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대단하게 느껴졌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기적이라는 사실이... 이 기적들이

우리 속에서 일상처럼 묻히지 말았으면 하는 바람과 이 기적들을 경이로움으로 날마다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좀 더 누리고 좀 더 느끼며 잠잠히 내 속에서 이런 경이로움이 자리 잡고 깊어지기를 소망한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속에서 창조주의 형상을 만나며,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신 생명의 경이로움이 누리지기를 기도한다. 그리고 이런 경이로움과 충만함이 자녀와 이웃에게 나누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십대들의 성형 수술, 무엇이 문제인가?

출처: 국제틴스타 자료 / 번역: 박경희 · 한국틴스타 교사



청소년들에게 가슴확대와 지방흡입 시술이 상당한 인기를 끌고 있지만 논란도 만만하지 않다. 두 시술의 안전성은 18세 이상의 여성에게만 확인되었을 뿐인데 많은 의사들은 어린 십대들에 대한 시술도 주저하지 않는다. 해마다 얼마나 많은 시술이 시행되는지에 대해 정확한 통계는 나와 있지 않지만, 2003년 한 해에만 18세 이하의 어린 십대에게 1만 1330건의 시술이 행해진 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같은 해 성형외과 의사들이 보고한 시술 건수는 400건이며 2006년에는 성형외과와 미용성형외과가 19세 이하의 시술에 대해 보고하기 시작했는데 두 배 이상이나 되었다. 청소년 시기에 가슴은 아직 완전히 발달하지 않은 상태라서 가슴 크기를 확대하는 것은 너무 성급한 일일지 모른다. 실리콘 이식 역시 매우 복잡한 시술이라서 가슴이 단단해지거나 상처가 남고 세월이 흐를에 따라 모양이 틀어질 수도 있다. 식염수 보형물은 좀 더 나을 수도 있지만 마찬가지로 상처가 남는 등의 문제가 있다. 큰 가슴에 대한 안 좋은 인식 때문에 가슴을 축소하는 시술 또한 시행되는데, 이 경우도 엽상암(cystosarcoma phylloides)과 같은 치료 수

술이 필요한 병이 아니라면, 주관적인 판단이 결정적인 작용을 한다. 성형수술을 하고 싶어 하는 대부분의 십대 여자 청소년들은 외모에 대한 관심이 높으며 이는 그 나이에 전형적인 현상이다. 어떤 의사들은 여유증(여성형 유방, gynecomastia)에 시달리는 십대 중반 소년들에 대해 가슴 축소수술을 시행한다. 그러나 여유증은 청소년 말기가 되면 거의 항상 사라진다. 가슴 미용성형수술이 어떤 정신적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는 거의 연구된 바가 없다. 초기 단계에는 상당히 만족스러워하지만 여섯 건의 장기적 후향성 연구조사에 따르면 가슴확대 수술을 받은 여성의 경우 비슷한 연령의 다른 여성보다 자살할 확률이 상당히 높다고 한다. 하지만 정신건강의 문제가 수술 전부터 있었는지 수술 후에 발병했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다. [편집자: 아마도 전부터 있었을 테지만 이 문제는 거론되지 않았다.]

섭식장애 이면에 잠재해 있는 외모 인식에 대한 문제는 많이 연구되어 왔다. 이 문제는 지방흡입에 대한 갈망도 유발할 가능성이 있

하지만 같은 해 성형외과 의사들이 보고한
시술 건수는 400건이며
2006년에는 성형외과 미용성형의가
19세 이하의 시술에 대해 보고하기 시작했는데
두 배 이상이나 되었다.



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방흡입 전 시술검
사에는 바디 이미지에 대한 심리검사가 포함
되어 있지 않다. 비록 성형외과 의사들이 지
방흡입을 원하는 환자들의 동기와 수술 직후
의 만족도를 보고하고 있지만, 체형은 유전
적으로 결정되며 환자가 수술 후 생활방식을
적절히 바꾸지 않으면 몇 달 혹은 몇 년 후
체형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게 된다. 한편
십대 청소년이 과연 모든 사항을 충분히 인

식하고 시술에 동의할
정도로 성숙한지는 의문이
다. 십대 자녀의 끝없는 압박
에 시달려야 하는 부모 역시 마찬가지다.
또한 쓸모없는 때로는 해롭기까지 한 수술을
기꺼이 해주는 시술자들의 윤리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편집자: 여기서 정신적
으로 건강한 대안은 십대들이 자신의 생명력이 지
닌 가치를 이해하도록 돕는 것이다.]

생각해 봅시다!

청소년은 '교사가 가르치는 내용과 교사의 삶에 일치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예민하게 느낀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틴스타 교사는 프로그램의 가치 기준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꿈임없이 생활 속에서 실천하며 사는 자세가 필요하겠지요?



2009년 상반기 진행현장

분류	장 소	담당교사	시작일	지역
학교	건국대학교(총)	송영주 선생	2008년 11월 15일	서울
성당	서울대교구 상도동성당(총)	김혜정 선생	2009년 1월 24일	서울
	서울대교구 가좌동성당(총)	이정림 선생	2009년 1월 30일	
시설	안양 중앙성당(중)	이영숙 선생	2008년 12월 13일	경기
	파랑새공부방(중)	김영숙, 정원배 선생	2008년 11월 19일	서울
	홀트아동복지회 아름뜰(미)	강민숙 선생	2009년 1월 24일	
기타	홀트아동복지회 크로바(미)	강민숙 선생	2009년 1월 24일	서울
기타	하이패밀리상담실(총)	박진경 선생	2009년 1월 19일	서울

2008년 하반기 종료현장

분류	장소	담당교사	시작일	종료일	지역
학교	부천 수주중학교(중)	조은주 선생	2008년 9월 19일	2008년 10월 2일	경기
		김해영 선생	2008년 10월 1일	2008년 12월 20일	
		정선미 선생	2008년 9월 29일	2008년 12월 15일	
		이정림 선생	2008년 9월 27일	2008년 12월 22일	
		이석근 선생, 김민지 수녀	2008년 10월 1일	2008년 12월 10일	
남양주 심석고등학교(고)	조은주, 김수경, 강희숙, 임복규, 정혜경, 김영숙 선생	2008년 9월 3일	2008년 12월 3일	서울	
안양 근명여자중학교(중)	천혜숙, 이영숙 선생	2008년 9월 1일	2008년 12월 23일		
	고경미, 김명숙	2008년 9월 1일	2008년 12월 22일		
동두천중앙중학교(중)	한영희, 김혜경, 이세라, 양은미, 김수경 선생	2008년 4월 11일	2008년 9월 20일		
백석중학교(중)	배국자 선생	2008년 4월 2일	2008년 11월 19일		
동명여자고등학교(고)	임형선 선생	2008년 4월 3일	2008년 12월 18일		
하비에르국제학교(중)	유정광 선생	2008년 9월 26일	2008년 12월 12일		
	안병옥 선생	2008년 9월 19일	2008년 12월 12일		
하비에르국제학교(고)	조정옥 선생	2008년 10월 2일	2008년 12월 18일		
전농중학교(중)	김희숙 선생	2008년 5월 3일	2008년 11월 1일		
용화여자고등학교(고)	김창열 선생	2008년 4월 18일	2008년 12월 19일		
성암여자중학교(중)	송영주 선생	2008년 5월 17일	2008년 10월 18일		
용인대리구 신갈성당(중)	박소윤 선생	2008년 10월 25일	2009년 1월 8일	경기	
의정부교구 마두, 백석성당 수녀모임(총)	이정현 선생	2008년 9월 11일	2008년 12월 4일		
인천교구 용현5동성당(총)	이정림 선생	2008년 10월 9일	2009년 1월 15일		인천
성당	제주교구 청(총)	정은실 선생	2008년 9월 8일	2008년 11월 4일	제주
	제주교구 광양성당(총)	김정민 선생	2008년 9월 7일	2008년 11월 30일	
시설	서울대교구 삼성동성당(총)	이경민, 이미경, 김미숙, 윤기숙 선생	2008년 9월 21일	2008년 12월 14일	서울
	서울대교구 혜화동성당(총)	조정옥 선생	2008년 10월 22일	2008년 12월 26일	
		양은미 선생	2008년 10월 22일	2009년 1월 9일	
	서울대교구 세검정성당(총)	김혜정 선생	2008년 10월 14일	2008년 12월 30일	
시설	꿈사리공동체(고)	윤영희 선생	2008년 10월 10일	2008년 12월 12일	경기
	밤골아이네공부방(중)	양은미 선생	2008년 9월 24일	2009년 1월 8일	
	홀트 아름뜰(미)	강민숙 선생	2008년 10월 9일	2009년 1월 13일	
기타	꽃동네공부방(총)	이지현 수녀, 박인규 선생	2008년 10월 17일	2009년 1월 23일	충북
	민들레출판사(총)	이정현 선생	2008년 10월 31일	2009년 2월 6일	서울

* 총 : 중학교 프로그램, 고 : 고등학교 프로그램 총 : 총체적인 성 프로그램, 미 : 미혼모 프로그램

☆ 틴스타 프로그램 사전설문지 안내

프로그램 시작 시 ‘기본보고서’와 함께 ‘사전설문지’를 틴스타 사무실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설문지는 한국틴스타 홈페이지(www.teenstar.or.kr) 교사 자료실에 있습니다.

☆ 틴스타 프로그램 종료설문지 안내

프로그램이 끝난 뒤 ‘종료설문지’를 본부에 보내실 때는 반드시 종료일을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몸의 신학’을 강의하신 박규식 신부님이 선교를 위해 페루로 떠나십니다.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 2009년 한국틴스타 지도자 과정 워크숍 종료 현황

제58차 한국틴스타 지도자 과정 워크숍 - 서울

- 주 최 : 한국틴스타 본부
- 기 간 : 2009년 1월 5일 ~ 8일
- 장 소 : 혜화동 가톨릭신학원
- 수료자 : 51명

제60차 한국틴스타 지도자 과정 워크숍 - 대구

- 주 최 : 한국틴스타 본부
- 기 간 : 2009년 1월 28일 ~ 31일
- 장 소 : 남산동 대신학원
- 수료자 : 32명

제62차 한국틴스타 지도자 과정 워크숍 - 수원

- 주 최 : 수원대리구 청소년국
- 기 간 : 2009년 2월 10일 ~ 13일
- 장 소 : 수원 가톨릭청소년 문화원
- 수료자 : 33명

제59차 한국틴스타 지도자 과정 워크숍 - 창원

- 주 최 : 젊음의 집
- 기 간 : 2009년 1월 12일 ~ 16일
- 장 소 : 젊음의 집
- 수료자 : 17명

제61차 한국틴스타 지도자 과정 워크숍 - 대구

- 주 최 : 한국틴스타 대구지부
- 기 간 : 2009년 2월 3일 ~ 6일
- 장 소 : 대구대교구청
- 수료자 : 17명

제63차 한국틴스타 지도자 과정 워크숍 - 대전

- 주 최 : 대전교구 가정사목국
- 기 간 : 2009년 2월 16일 ~ 19일
- 장 소 : 대전 가톨릭 문화원
- 수료자 : 33명



☆ 2009년 한국틴스타 지도자 과정 워크숍 안내

제64차 한국틴스타 지도자 과정 워크숍 - 서울

- 주 최 : 한국틴스타 본부
- 기 간 : 2009년 7월 6일 ~ 9일
- 장 소 : 혜화동 가톨릭신학원

제66차 한국틴스타 지도자 과정 워크숍 - 인천

- 주 최 : 노틀담수녀회
- 기 간 : 2009년 8월 13일 ~ 16일
- 장 소 : 노틀담수녀회 인천관구

제65차 한국틴스타 지도자 과정 워크숍 - 진주

- 주 최 : 진주개양중학교
- 기 간 : 2009년 8월 3일 ~ 6일
- 장 소 : 미정

☆ 한국틴스타 후원금 안내

틴스타는 여러분의 도움으로 일궈나갑니다. 후원해 주실 분은 홈페이지에 있는 CMS신청서를 이용해 주십시오.

- 후원통장 : 우리은행(예금주: 한국틴스타) : 1005-100-998647
국민은행(예금주: 한국틴스타) : 875401-01-517401
신한은행(예금주: 한국틴스타) : 306-01-261337
외환은행(예금주: 한국틴스타) : 611-016668-535



발행일 : 2008년 3월 2일

발행처 : 한국틴스타

주 소 : 서울 중구 명동길 62 명동2가 1 가톨릭회관 519호

전 화 : 02)755-2629

발행인 : 배마리진 수녀

홈페이지 : www.teenstar.or.kr

E-mail : kteenstar@hotmail.com

팩 스 : 02)727-2243